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양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소망교회, 명성교회 등이 있으며, 같은 노회에 온누리교회, 큰빛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전도대상자 작성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도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기록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첫째 주일은 새생명 축제 주일로 지킵니다.
3. 다음 주일은 목장주일입니다. 목자들은 목장모임을 잘 준비해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4. 다음 주일 예배기도 담당은 유중열 집사님입니다. 오후에는 목장주일 및 전도주일로 지키는 관계로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5. 예배 후 친교실에서 맛있는 점심과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친교 나누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 날짜	9월 3일	9월 10일	9월 17일	9월 24일
예배기도(오전)	인도자	신태식 장로	이준화 집사	유중열 집사
예배기도(오후)	김화현 집사	박선경 집사	인도자	목장주일
주일식사담당	김경미 집사 이승미 집사 박진 집사	황희용 권사 이영선 집사	김금옥 권사 박선경 집사 이정현 집사	유숙정 권사 최윤정 집사 신경미 권사
토요일청소	둘로스목장(9/2)	주사랑목장(9/9)	에덴목장(9/16)	갈렘목장(9/23)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하늘문교회 비전 2020을 위해서
2. 남·여 선교회와 목장을 위해서
3. 유치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서
4.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5. 환우들의 쾌유를 위해서 - 장승호 집사님, 김정순 집사님, 오지원 집사님
6.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양강암 선교사님(U국)의 선교지와 선교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 드립니다.

HANEULMUN VISION MESSAGE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름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427번지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 도 자
 *성시교독 교독문 82번(빌립보서 2장) 다 갈 이
 *경배찬송 19장(통 44장) 다 갈 이
 *참회기도 다 갈 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갈 이

찬양과 기도

찬 송 393장(통 447장) 다 갈 이
 대표 기도 이준화 집사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고전 7:18-24 인 도 자
 자녀를 위한 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 기도 인 도 자
 말씀 선포 '주께서 부르신 곳에서'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다 갈 이
 *결단송 620장 다 갈 이
 *축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 말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아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 2장 10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30 인도 : 허영진 목사

경배와 찬양 찬양인도 : 오승현집사 다 갈 이
 묵상기도 은혜를 구하며 다 갈 이
 찬 송 330장(통 370장) 다 갈 이
 기도 인 도 자
 특별찬양 누 구 든 지
 성경봉독 렘 1:4-10 다 갈 이
 말씀 선포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허영진 목사
 기도 인 도 자
 교회소식 인 도 자
 찬 송 384장(통 434장) 다 갈 이
 축도 허영진 목사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요한복음 강해 허영진 목사
 요 5:9-15 '새로운 미래의 출발점'(6)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잠 16:3 '기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밀'

새벽기도회 새벽 5:30 시편 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시 48:1-14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하나님'(1)-(5)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나이는 숫자일 뿐’

삶이 분주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TV를 시청하곤 한다. 뭐 딱히 볼 게 있어서 보는 건 아니다. 뉴스 아니면 다큐 정도다. 드라마는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지만 시간도 없어 언감생심(焉敢生心) 꿈도 못 꾀다. 며칠 전 TV에서 기분 좋은 다큐를 보았다. 강원도 철원 민통선에 사시는 99세 할아버지 얘기다. 매일 아침마다 직접 트럭을 운전해 일터로 가고, 서울 사는 자녀를 방문할 때는 트럭으로 시외버스 역까지 가서 버스와 전철을 갈아타며 혼자 다녀오기도 한다. 독립적이고 부지런한 생활, 긍정적 사고, 어린아이 같은 표정까지 모든 게 존경스러웠다. 나이를 잊고 오직 현재에 충실한 어르신에게 다가올 시간에 대한 기우는 없었다.

우리 주변에도 노익장을 보여주는 분들이 많다. 며칠 전, 개인적인 일로 종로 5가에 있는 한국기독교연합회관을 찾았다. 불일을 다보고 나오는데 우연히 옛 신학교 K은사를 뵈었다. 당신 퇴직 이후 무려 12년만이다. 유난히도 많이 아껴 주셨고 섬겨 주셨다. 해박한 지식과 놀라운 기억력으로 어떤 주제의 대화에도 열심이셨다. 풍부한 인생 경험으로 우리의 고민을 경청하고 방향을 일러주셨다. 작은 것이라도 칭찬거리를 찾아내 상대를 치켜세워 주시는 성품에 모두가 감복했다. 너무 반가운 나머지 주변 의식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분 좋게 얼싸 안았다. 보다 정확히는 당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그날도 당신이 쓴 책을 출판하기 위해 그 곳을 찾으셨단다. 지금도 강의를 부탁하는 곳이 있으면 열일 제쳐 놓고 달려가서 강의를 하시기도 하고, 강의가 없는 날이면 책 쓰기로 보내고 계신다고. 이렇듯 학구열로 승화되는 도전 정신은 "나이는 숫자일 뿐"이란 말을 실감케 한다. 중년을 보내고 있는 나는 어떠한가. "내 나이가 얼마데 그 일을 할 수 있겠어?" 나이 탓으로 돌리며 시도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는 않았는지. 익숙함의 습관에 젖어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여기며 사는 영적 무력감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미련한 자는 자신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는 잠언 13장 16절의 말씀처럼 미련한 삶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다짐을 통해 세월을 이겨보고자 한다.

Written by 허영진